

# 청년의 건전한 '금전관리' 도와

### 전주시, 청년금융코칭 '내 통장 두드림' 실시 금융대출로 위기에 처한 청년 채권조정 지원

전주시가 청년들이 금융지식을 바탕으로 사회생활에 안정적인 첫 발을 내딛을 수 있도록 금전관리습관을 돕고 나섰다.

시는 지난 6월 28일부터 8월 9일까지 6주간 전주에 거주하는 청년 97명을 대상으로 고위험 투기의 위험을 숙지하고 금융자산을 안전하게 형성하는 법을 익힐 수 있는 청년금융코칭프로그램인 '내 통장 두드림'을 실시했다.

이 프로그램에는 김선유 전주시 금융복지상담소 실장 등 3명의 금융전문가들이 강사로 나서, △사회초년생이 알아야 할 금융 기초지식 △금전관리습관 배양을 위한 가계부점검 △일대일 상담을 통한 맞춤형 금융컨설팅 등으로 꾸며졌다.

특히, 재무심리검사를 바탕으로 도출된 개인별 재무정보와 심리상태를 반영한 맞춤형 금융컨설팅은 참여한 청년들의 높은 관심을 받았다.

또한, 시는 프로그램 참여자 중 보증채무와 제3금융권 대출 등으로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 대해서는 전주시 금융복지상담소와 연계해 채권조정을 돕는 등 개인 회생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이번 금융코칭에 참여한 김일곱 씨는 "평소 궁금했던 알쏭달쏭한 사항을 즉석에서 답을 들을 수 있어서 무더위에도 매우 유익한 시간이었다"며 "특히 매월 빠져나가는 보험금은 알면서도 정작 가입내역을 잘 몰랐다는 사실을 되짚어볼 수 있어 큰 도움이 됐다"고 참여 소감을 밝혔다.

전주시 신성장산업본부 관계자는

"건전한 금융지식은 청년들이 안전한 사회에 첫발을 내딛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전주의 지속적인 발전에도 중요한 요소다"며 "앞으로도 전주시 금융복지상담소와 함께 청년들의 생활여량강화를 위한 알찬 금융코칭과 상담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청년여량강화 프로그램은 전주 청년을 대상으로 매년 무료로 정기 운영되고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 일자리청년정책과(063-281-5023)로 전화하거나 청년희망단 페이스북(www.facebook.com/youthhop\_ejoni)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송효철 기자

## 아빠와 함께 하는 특별한 추억 만들기

### 완산구, 10월까지 11개 동 서 특별 프로그램 운영 숲 체험 · 요리교실 · 보드게임 · 전통문화체험 등

전주시 완산구가 평소 직장일로 함께할 시간이 부족했던 아빠와 자녀가 특별한 추억을 만들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완산구는 아빠의 자녀 돌봄 역할을 강화하고 자녀와의 관계 회복과 친밀감 향상을 위해 '아빠와 함께 배우고 소통해요'를 주제로 한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자녀들과 함께 하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아빠와 자녀가 자연스럽게 소통하며 친밀감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으며 지난 6월 평화동을 시작으로 7월 삼천동, 8월 서신동과 효자동에 이어 오는 10월에는 삼천3동 등 7개 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된다.

서신동은 오는 17일 오후 6시에 '아빠와 아이가 함께하는 재미있는 놀이체험'이라는 주제로 공룡 팝업북 만들기, 효자동은 18일과 25일, '아빠와 함께 하는 보드게임(대닌치코드, 타이거)'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으로 수강생을 모집하고 있다.

/송효철 기자

이어 10월에는 삼천3동, 노송동 등 7개 주민자치센터에서 클레이아트, 책 놀이 등이 운영 될 예정이다.

앞서, 완산구는 지난 6월 '아빠랑 숲에 가는 날'이라는 주제로 건지산 편백나무숲에서 나무와 곤충 체험을 하고 7월에는 '아빠와 함께 하는 요리교실'을 진행해 어린이 영양 교육과 퀴즈 게임, 요리 만들기 등을 했다.

이철수 완산구청장은 "직장 때문에 바빠서 아이와 잘 놀아주지 못하는 아빠들에게는 아이와 함께 즐거운 추억을 만들 기회가 될 것이다"며, "앞으로도 짧은 시간이지만 가족의 소중함과 가정에서 아빠의 역할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완산구는 이번 특별 프로그램을 진행한 뒤 참가자 설문조사 등 자체 평가를 통해 각 동의 특색에 맞는 신규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송효철 기자

## '덕진구의 안전은 우리가 지킨다'

### 구청장 · 예비군 지휘관 간담회

전주시 덕진구는 8일 동 예비군 지역대 지휘관 16명을 초청, 시정 현안 공유 및 시 발전에 관한 다양한 의견 수렴과 향토방위태세 확립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 덕진구는 관내 주요 현안인 첫마중길, 이중호수 생태공원 조성 등 시민들이 궁금해 하는 현안들에 대해 공유하고 예비군 중대의 낙후된 시설 등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덕진구의 향토방위 및 지역안보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양연수 덕진구청장은 이날 "전주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천만 관광도시로 어느 지역보다 튼튼한 안보태세 확립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지역발전과 시민의 안전에 기여하고, 지역안보확립을 위해 긴밀히 협조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정길래 지역대장은 "예비군의 교육과 훈련, 근무환경 개선 등을 지원해 준 덕진구에 감사하다"며, "지역과 지역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덕진구는 앞으로도 각종 통합방위 대비책을 점검하고 예비군 지역동대와 유기적인 지역방위 협조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송효철 기자



지난 8일 전주시 덕진구청에서 양연수 덕진구청장과 덕진구 예비군 지역대 지휘관 16명이 참여한 가운데 시정 현안 공유 및 시 발전에 관한 다양한 의견 수렴과 향토방위태세 확립을 위한 간담회가 열리고 있다.

### 전북경찰, 교통업무 발전기여 교통통신원 감사장 수여

전북지방경찰청(청장 강인철)은 교통정책 제언 등 경찰업무에 관심을 가지고 협조해 온 한갑원 TBN 교통방송 전북본부 통신원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

한 통신원은 전주 서부신시가지 휴먼시아 5.6단지 버스정류장 부근의 무단횡단 방지와 어린이 보호구역 주변 과속방지턱 설치 제언 등 교통안전에 기여했다.

한편, 전북 교통경찰은 지난 3월 부터 다양한 의견청취를 통해 혁신적인 교통정책을 만들기 위해 '참 업무력 신 TF팀'을 발족하여 교통업무 개선 종합계획을 세워 운영 중에 있다.

전북 경찰청은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나머지 개선되지 않은 부분을 제보를 통해 찾아내 개선해 나가는 등 교통 수요자 중심의 정책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송효철 기자

## 여성 150여명 몰카 찍고 동종 전과도 있는데... 구속영장 기각

### 쇼핑 카트에 스마트폰 숨겨 153명 여성 치맛속 촬영 동종 전과까지 있는데 법원 "도주 우려 없다"며 기각

대형마트 쇼핑 카트 속에 스마트폰 카메라를 숨겨 여성의 치맛속을 촬영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동종 전과가 있고, 피해 여성만 150명이 넘는 데도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해 최근 '성(性)차별 수사 논란'과 관련해 또 한 번 여성계 반발이 예상된다.

서울영등포경찰서는 최근 이모(37)씨를 여성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한 혐의(카메라 등 이용 촬영)로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이씨는 2016년 3월부터 올해 4월 까지 약 2년 간 여성 153명의 치맛속을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지난 4월 서울 영등포구 한 대형마트에서 쇼핑 카트에 스마트폰

카메라를 숨겨 달아 여성의 치맛속을 동영상으로 찍다가 이씨 행동을 수상히 여긴 마트 직원의 신고로 현장에서 체포됐다.

경찰은 이씨에게 동종 전과가 있으며 피해 여성이 다수라는 점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이 법원에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 가능성이 없다"며 기각했다. 이에 경찰은 불구속 상태로 이씨를 검찰에 넘겼다.

법원의 이 같은 결정은 또 한번 성차별 수사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최근 페미니즘 단체 등 여성계는 온라인 커뮤니티 '워마드' 운영자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을 두고 성차별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극우 성향 여성 혐오 커뮤니티인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에 대한 수사는 하지 않으면서 여성 커뮤니티에만 칼을 빼들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앞서 '홍대 미대 남성누드 모델 몰카 사건'의 피의자 여성이 사건 발생 24일 만에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것을 편파 수사로 규정해왔다.

남성이 피의자인 몰카 사건 수사는 대개 지지부진한 반면 이 사건은 법원이 여성이었기 때문에 수사 속도가 이례적으로 빨랐다는 것이다.

법원은 앞서 지난 4월 서울 관악구 한 모델에서 20대 여성을 성폭행하고 또 다른 여성들과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찍은 20대 남성이 혐의를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는 곳이 일정하고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뉴시스

## 여성에게 상습 협박한 공무원 항소심도 벌금형

### "내 전화 왜 안 받아?"

자신이 봉사하던 곳에서 알게 된 여성에게 지속해서 사적인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협박한 전북도교육청 소속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3형사부(방승만 부장판사)는 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A씨의 항소를 기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B(19)양이 지난해 5월 전화를 잘 받지 않고 답장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신과의 사적 만남 등을 지인들에게 일탈 것처럼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B양의 동갑내기 친구에게도 "술집 여자 같다. 그러니까 성폭행을 당하지"라는 등 욕설과 함께 성적으로 모욕하는 내용이 담긴 메시지를 보낸 혐의도 받았다.

조사결과 A씨는 지난해 3월 B양이 대학교에 들어가자 공무원시험 준비, 아르바이트 소개, 생활지원 등을 이유

로 사적인 연락을 하며 B양과 만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B양은 A씨가 자신에게 성적 대상으로 접근한다는 불안감을 느끼고 A씨의 연락을 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은 B양이 자신을 돌봐주던 봉사단체 직원에게 이 사실을 털어놓으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되자 검사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A씨는 "공포심이거나 불안감을 조성하는 문자를 보내지는 없었다"는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지원을 꼭겠다'는 취지로 보낸 문자메시지는 장래에 발생 가능한 것으로 생각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 공포심을 일으킨 것으로 협박에 해당한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양형과 관련해서는 "원심과 비교해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뉴시스

세계를 향해, 시민과 함께

# 찬란한 전주시대를 열겠습니다